



이달의 포커스 뉴스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주베트남한국중소기업연합회(KOBIZ)
“베트남 사업의 고충과 해법,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16P

2022년 상반기 행사 이모저모

- Meet Korea 2022(in Thanh Hoa), 2022 베트남 엑스포

19P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주베트남한국중소기업연합회(KOBIZ)	16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사참관기> MEET KOREA 2022(Thanh Hoa), 2022 베트남 엑스포	19
<input checked="" type="checkbox"/> <투자> 합작 법인 설립시 고려해야 할 점	25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률> 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3)	29
<input checked="" type="checkbox"/> <IP-DESK> 베트남 지식재산권 안내	3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새로나온 베트남 관련 보고서>	33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흥옌성>	37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45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7



1 MAY – LABOUR DAY





2022년 베트남 인프라 산업 현황 및 전망 살펴보기

- 베트남 인프라산업 투자 방향은 교통, 에너지, ICT, 농촌·도시 기반 시설 부문으로 구분
- 베트남 정부, 코로나19 장기화 속 투자환경 개선과 행정 개혁에 힘써

베트남,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더욱 부각

베트남은 그간 도로, 항만, 공항, 교량, 에너지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이러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1~2025년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인프라 산업 투자 방향은 교통, 에너지, ICT, 농촌·도시 기반 시설 부문으로 구분된다.

* [베트남의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다섯개 부문](#)(원본뉴스참고)

시장 규모

Fitch Solutions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베트남의 인프라 산업 규모는 약 47억57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베트남 인프라 산업은 연평균 5~6%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에는 110억4400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쟁구도 분석

이전에 베트남 시장은 베트남 내 국영기업에 의한 프로젝트들이 지배적이었으나 사유시장경제가 가속화되고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베트남 건설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itch Solutions 데이터(KPD)에 따르면, 현지기업의 베트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 비율은 전체의 약 43%를 차지한다. 국내 주요 플레이어로는 CotecCons,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 및 LILAMA Vietnam Machine Installation Corporation이 있으며, Vietsovpetro 및 PVC-MS와 같이 해상 프로젝트에만 집중돼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다.

베트남 인프라 시장은 현지 기업 외에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의 계약자들이 57%의 시장점유율로 베트남 인프라 산업의 계약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중, GS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과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이 시장점유율 15%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시사점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과 건설 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설 산업의 단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주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개발단계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의 회복이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베트남은 경제 회복과 더불어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출을 지원하고 부동산 및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및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인프라 건설시장의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적용 절차 안내

- RCEP은 기관증명, 자율증명 모두 가능하나 베트남은 기관 증명 후 자율 증명 도입 예정
- 베트남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은 4월부 가능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 베트남은 기관 증명, 10년 이내 자율 증명 도입 예정

RCEP 협정문 상 제3장 원산지 규정 3.16조에 의거하면 RCEP은 기관 발행과 및 인증수출자에 따른 원산지 자율 증명이 동시에 가능하다. 베트남은 먼저 기관 발행 형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협정에 따라 10년 이내에 자율 증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발효일 후 20년 내에 자율 발행 도입 할 수 있다.

RCEP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베트남 기타 FTA와 동일하게, [베트남 산업무역국\(MOIT\)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행 신청할 수 있다.

베트남 RCEP 자율 증명 요건은?

베트남 RCEP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자율 발행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율 발행을 위한 인증 수출자 요건을 협정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한 수출자에 한해서 자율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RCEP 자율 증명 조건 및 자율 최소 정보 요건](#)(원본뉴스참고)

베트남 수입 시 RCEP 원산지증명서 적용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2022년 4월 4일 이후로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행은 가능하나 수입 시 RCEP 원산지증명서 적용은 HS CODE 2022 업데이트로 7월 적용이 예상된다. 다만, 발효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RCEP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후 적용 후 납부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사후 적용을 위해서 수입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표시해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만약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신고된 경우에는 RCEP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관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사점

한국과 베트남은 RCEP을 포함한 한-베, 한-아세안 총 3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아세안, RCEP 2개 협정을 체결 중이다. 우리 진출 기업은 베트남 수입 시 적용되는 특혜관세율과 더불어 원산지 누적을 통한 수출 시 활용의 목적을 통합 고려해 FTA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출국가 사용 HS CODE와 베트남 수입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 수입 HS CODE 기준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베트남의 LNG 발전 프로젝트 전망

- 2022년 말 베트남 최초 LNG 터미널인 티바이 터미널 완공해 LNG 수입 개시 예정
- 수입산 LNG는 베트남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불가피, 국내외 에너지기업의 LNG 프로젝트 참여 확대 중

베트남 천연가스 및 LNG 수요 전망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최근 베트남에서는 전통적인 가스화력발전 외에도 수입산 LNG를 활용한 LNG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및 투자가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LNG가 새로운 발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Fitch Solutions에 의하면, 베트남의 천연가스 수요는 향후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20년 9.7bcm에서 2030년 22.7bcm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수요는 수입산 LNG와 신규 해상 가스 프로젝트로 인한 공급 안정성 개선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곧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의 가장 최신 잠정안에 따르면, 가스 및 LNG는 전력 부문에서 석탄화력의 빈자리를 채우며 비교적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천연가스 고갈 위기에 따른 수입산 LNG 도입 정책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연간 약 9.0~10.0bcm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매장량과 향후 개발 추진 속도를 미루어 봤을 때 베트남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미래 수요(특히 높은 발전용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매우 부족한 형편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가스 생산량은 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과의 분쟁으로 남중국해 해양 탐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에 가스 수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천연가스 고갈 문제 및 국내 가스 공급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수입산 LNG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7년 결정서 '2035년을 향한, 2025년까지의 베트남 가스산업 발전기본계획'(Decision No. 60/QD-TTg)' 공표를 통해 천연가스 수입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주요 LNG 발전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국제금융공사(IFC)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평균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전력 공급 확대 및 기술 다양화, 전력 송출 인프라 확충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투자 및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부분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서 언급한 PDP와 가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전통적인 석탄 화력에서 벗어나 LNG, 태양광, 풍력과 같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중점 발전원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사점

LNG 부문의 자금조달 가능성의 확대, 외국인 자본 유입 증가, 정부 지원 등 각종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밝으나 PDP8 발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 향후 베트남 에너지 공급에서 가스(LNG)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재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우크라이나 사태가 베트남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21년 베-러 교역규모 10억 달러, 베-우크라 교역규모 1억 달러
- 수출입 위축 및 물류 일부 차질…환율과 거시경제 영향은 미미할 것

베트남 유가 인상 및 비료 가격 상승

러-우 사태로 인하여 세계 원유가격은 브렌트유 가격 기준 2월 22일을 기점으로 1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유가 상승압력 상황 속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재무부에 베트남의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환경세를 50% 감면할 것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부과되는 환경보호세 50% 감면 결의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 3월 초 비료 가격은 수급문제로 5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베트남은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수확하고 4월 초에 신규 작황을 시작한다. 따라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이후 비료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 2분기 인산이암모늄(DAP)비료는 수요 대비 64% 부족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DAP 가격은 톤당 약 1098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플레이션, 아직 4% 미만으로 통제 가능

베트남의 국내 유가와 가스 가격이 세계 유가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유가가 베트남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의 연료에는 많은 세금(수입세, 환경세, 소비세 등)이 붙으며 안정을 주도한다. 한편, 전기와 수도(3.9%), 의료(5.4%), 교육(5.5%) 등 인플레이션 지표는 여전히 잘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드래곤캐피탈은 베트남 인플레이션에 어떤 요인이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달 동안 연료 가격과 몇 가지 필수 상품의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외부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4%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국회의 목표와 함께 물가를 여전히 잘 통제하고 있다.

베트남 향후 경제 전망 및 기회 모색 방향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의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 밀 관련 식량 및 농산물 가격 상승은 베트남 기업들에 부분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다. EU 국가들은 연간 최대 1600억 달러의 식량을 수입하며 이들의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유럽 시장에 쌀을 수출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세계가 러시아에 가하는 경제제재와 수출 금지를 고려할 때 EU는 곡물과 농산물의 대체 공급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를 대체할 베트남의 요소비료 대체 공급선을 찾기 위하여 베트남이 생산하는 요소 비료에 대한 해외의 연락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비료 시장을 놓고 보면 베트남은 비료 시장에서 큰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으나 요소 생산자의 경우는 해외 수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새로운 수출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분유시장 동향

- 높은 출산율(2.09명)로 베트남 분유시장 견고한 성장 기대
- 고품질, 기능성 등을 강조한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 필요

상품명 및 HS Code

유아용 조제 분유의 상품코드는 한국 HS코드(10자리) 기준 1901.10.10100이며, 베트남 HS코드(8자리) 기준 1901.10.20으로 분류된다. 관세의 경우, 한-베 FTA 및 한-아세안 FTA를 통한 0%가 적용되며, 베트남 현지 부가세는 통상 10%이나, 2022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 8%(15/2020/ND-CP)로 인하된 부가세가 적용된다.

시장 규모 및 동향

2021년 베트남 분유 시장규모는 약 14억7,900만 달러 규모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9%, 최근 5개년 연평균 2.82%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스텠다드, 팔로우온 분유 부문은 최근 5개년 연평균 1%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그로잉업 분유 부문이 3%로 분유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9년 베트남 평균 출산율은 2.09명으로 한국(0.92)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로 맞벌이 가정 또한 증가하며 모유 수유보다는 분유 수유를 선호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어 향후 베트남 분유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수입 규모 및 동향

2020년 베트남 분유(HS 1901.10) 수입 규모는 약 2억8,60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일본(20.8%), 태국(15.9%), 싱가포르(15.7%)로 2020년 전체 수입액의 52.5%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6년 약 2,500만 달러에서 5,900만 달러로 베트남의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20년 1위 수입국으로 도약하였으며 태국, 싱가포르는 수입액이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시사점

베트남의 평균 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 1.68명 보다 높은 2.09명으로 분유를 포함한 유아용품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라인과 성장 발육, 뇌 발달, 면역력 증가 등 기능성이 가미된 분유 제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분유를 단순히 이유식보다는 성장발달, 키 성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효능을 강조한 마케팅 문구 혹은 제조공정 등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Next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꿈꾸는 베트남, VINFAST를 중심으로

- 베트남, 2022년 3월 1일부터 전기차 등록비 면제, 특별소비세 1~3%로 인하
- 빈페스트, 2022년 말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100% 생산·판매로 전환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동향

베트남 정부는 침체한 내수 자동차 시장 소비 진작을 위하여 2020년 6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지조립·생산 자동차 등록비를 50% 감면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내수 조립·생산 자동차 대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21년 4월부로 시작된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과 더불어 정부가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업 및 생산이 중단됨은 물론 소비도 다시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 2021년 4월에 시작된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대수 감소는 8월까지 이어져 '21년 8월에는 내수 조립·생산 차량 전월 대비 47% 감소, 판매 대수 7,714대로 판매 대수의 경우 베트남 자동차 판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베트남 전기차 시장 동향

베트남 등록소(Vietnam Registry)에 따르면 2020년 등록된 베트남 자동차는 총 40만 7,487대이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1,000대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이 중 EV는 1%이며, 나머지 99%는 모두 하이브리드(HEV/PHEV) 자동차이다.

2022년 전기차 관련 신규 시행령

베트남 정부가 전기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전기차 등록비를 면제하는 것과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특별소비세를 차종별로 감면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15일 자로 발행된 '각종 등록비 관련 시행령(10/2022/ND-CP)'의 제2장 제 8조 제5항의 c에는 2022년 3월 1일부터 3년간 전기차 등록비가 면제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후 2년간 전기차 구매자의 최초 등록비는 내연기관차의 50%로 감면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월 11일 9인승 이하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월 1일부터 5년간 3%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국회 87.4%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전기차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 5~15%에서 1~3%로 인하된다. 이후 2027년 3월 1일부터 4~11%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시대를 향한 빈페스트의 야심

빈페스트의 전기차 전환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11월 출시된 C-세그먼트의 VF e34를 필두로 D-세그먼트의 VF 8과 E-세그먼트의 VF 9는 2022년 2분기 베트남 시장에 출시 예정이며, 이 두 모델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 2022년 4분기에 출시된다. A-세그먼트인 VF5는 베트남에 2022년 4분기에 출시되며, 해외 출시 계획은 없다. B-세그먼트인 VF 6은 2022년 말 베트남 시장에 출시되고, 2023년 중에 북미, 유럽, 세계시장에 차츰 출시할 예정이며, C-세그먼트인 VF 6은 2023년 초 베트남 시장에 출시하고, 2023년 중에 북미, 유럽, 세계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 베트남, 전자 세금계산서(E-INVOICE) 포털 정식 출범

베트남 정부는 4월 21일 베트남 총리 임석하에 전자 세금계산서(E-Invoice)발행 서비스를 정식 출범함.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21일부터 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꽝닌, 빈딩, 푸토 등 6개의 성·시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그 외 57개 성시로 확장한 바 있으며 기존 정식 서비스 출시 예정일인 2022년 7월 7일을 1분기 가량 앞당겨 정식 서비스를 출시함. 지난 3월, 당국은 해외에 본사를 둔 웹 서비스 공급업체에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포털(etaxvn.gdt.gov.vn)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인구, 기업, 사회보험, 토지 등의 국가 데이터가 통합되고 디지털 정부, 경제 및 사회의 발전 가속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힘.

[Nhan Dan, 4. 22]

▶ 베트남 상업 은행 예금 금리 인상

최근 베트남의 일부 상업은행은 온라인 예금에 대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함. VP Bank는 36개월간 500억 동 이상을 예금하는 고객에게 최고 금리 연 6.9%로 기존 대비 0.2% 인상함. 또한 100억 동 이상 500억 동 미만의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간 6.1%에서 6.7%로 0.6%p 인상 됨. 이에 앞서, MB은행은 1개월과 2개월 만기 예금 금리를 연 0.2%씩 인상하여 각각 2.9%와 3%로 높인 바 있으며, 36개월 만기 예금 금리는 연 6.4%에서 6.6%로 0.2%p 인상 함. BanViet, Vietnam Thuong Tin, Phuong Dong과 같은 일부 다른 상업 은행 역시 정기 예금 고객을 위해 연 이자율을 0.1-0.2% 인상 함.

[Hanoi Moi, 4. 21]

▶ 베트남, 2025년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디지털 경제가 될 것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2025년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디지털 경제가 될 수 있으며,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 많은 대기업들을 끌어들일 거라고 예측함. 또한 그들은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전자상거래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AccessTrade의 도후홍 (Do Huu Hung) 대표는, 전자상거래가 디지털 경제 발전의 첫 단계이며 물류 및 배달 서비스가 뒤따라야 소비자들의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구매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함. 이에 이어, 물류 및 배달 서비스가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50~60%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임.

[Vietnam Plus, 4. 21]

▶ 베트남 외교부, 중국과의 철도화물운송 활성화 의지 표명

레티투항(Le Thi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의 철도화물운송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레티투항은 베트남과 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파트너라는 점을 덧붙이며, 2021년 양국 교역액은 1659억 달러로 전년대비 24.6%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고 전함. 또한 “철도화물운송은 운송 시간과 가격 면에서 이점이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며 베트남, 중국 및 여타 국가 간의 물자 교류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전하며, “철도화물운송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점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덧붙임.

[Vietnam News, 4. 21]



▶ 꺼터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한국 투자 유치 포럼 개최

4월 19일 꺼터시 인민위원회 대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한국기업의 꺼터시 투자 유치 및 촉진 포럼을 개최함. 이 포럼을 통하여 2016년 조성된 한-베트남 인큐베이터 센터(KVIP)의 한-베 산업기술운영 및 농업기계화 사업의 성과를 검토했으며, 꺼터시는 한국 투자 기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한국 기업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베트남 남부지방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꺼터시에서 투자유치 및 정부-기업간담회를 포함하는 'Meet Korea' 개최를 논의 중임. 한-베 산업기술 인큐베이터는 꺼터시 지원금 약 343만 달러를 포함, 총 예산 약 1,770만 달러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기업의 한-베트남 인큐베이션센터(KVIP) 프로그램 참여 및 꺼터시内外 10개 입주기업과 생산 시설의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함.

[Nhan Dan, 4. 19]

▶ 하노이, 2022년 1분기 신규 아파트 공급 가격, 5년만에 최고치 상승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CBRE는 2022년 1분기 하노이의 중급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년 1분기 대비 9% 상승해 제곱 미터당 1,278달러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CBRE는 향후 2년 동안 하노이시 박뜨리엠, 동아잉, 롱비엔, 흥마이 및 탄찌 등의 지역에 5만 4천호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 될 것으로 전망함. 호찌민시 부동산 협회 회장은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장기적인 위험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한편, 주택의 공급 부족과 법적인 문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많은 사업이 동결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노력이 미비한 상태라고 분석함. 영국의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Savills Vietnam에 따르면 부동산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힘. 사회 주택과 저예산 상업용 아파트를 위한 토지 기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및 관련 부처가 행정과정에서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함.

[Hanoi Times, 4. 18]

▶ 아시아플러스 증권, 베트남을 유망 투자지로 분석

태국의 아시아플러스(ASIAPLUS) 증권사는 풍부한 현지 노동력, 낮은 최저 임금, 꾸준히 증가하는 1인 소득을 기반으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주장함.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러시아 원유 공급에 대한 제재가 세계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며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함. 아시아플러스 증권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2년 1분기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으며, 2028년까지 매년 5~7%씩 증가하여 태국과 싱가포르를 능가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베트남의 주식시장지수(VN-Index)는 2022년 초 이후 2%만 하락했으며, 미국의 S&P 500이 10% 하락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라고 언급함.

[Nhan Dan, 4. 16]



▶ 베트남 정부, 올해 146억 달러 부채 상환

베트남 정부는 올해 335조 8,000억 동(약 146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할 예정임. 이 중 89%는 원금이며, 나머지는 이자에 해당함. 정부가 고려하는 부채 상환액은 예산 수입의 23%를 차지하며, 25%의 임계값 미만임. 정부는 사회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는 목표를 발표함과 동시에 국채, 공적 개발원조(ODA) 및 해외 우대대출에서 위 자본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함.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베트남중앙은행(SBV)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임. 올해 지방성·시에서는 총 28조 6,000억 동(약 12억 달러)을 차입하고 6조 1,000억 동(2억 6,640만 달러)의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며, 계획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정부의 총 대출규모는 약 2,000조 동(874억 달러)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직접 부채 상환액 971조 동을 포함하여 향후 3년 동안 1조 1,000억 동(48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상환할 예정임.

[Hanoi Times, 4. 15]

▶ 통계청, 4월 15일부터 경제총조사 실시

베트남 통계청은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통계청은 사회경제적 관리, 거버넌스, 평가 및 전망을 위해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동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전 지역의 경제를 위한 개발 정책 및 계획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동 조사는 베트남 정부 부처 및 기관을 제외한 베트남 경제 관련 기구 및 기업(국제기구 및 기업 활동, 공산품 생산 및 서비스)을 다룰 예정임. 또한 경제총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총생산(GDP)과 지역총생산(GRDP)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기업과 협동조합에 관한 2023년 백서를 편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됨. 응답자는 베트남 통계청(GSO)의 경제총조사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공식 결과는 2023년 1분기에 발표될 예정임.

[Nhan Dan, 4. 13]

▶ 하노이시, 54만 명 미취학 아동 1년만에 등원 재개

하노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8일 오후 유치원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포함하여 직접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결정에 서명함. 하노이 전 지역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5월부터 휴교한 바 있으나, 하노이시의 결정으로 인하여 2022년 4월 13일부로 약 1년만에 54만 명의 미취학 아동이 등원을 재개함.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시설은 안전을 위해 교실을 소독하고, 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며, 교사들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미취학 아동을 관리감독 하도록 훈련을 받음. 최근 하노이 교육훈련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노이에서 미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의 약 80%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음.

[Hanoi Times, 4. 13]



▶ 국가임금위원회, 2022년 7월 1일부터 최저 임금 최소 6% 인상 제안

4월 12일 국가임금위원회는 2022년 2차 회의를 열어 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함.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지역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여부를 제안하였으나, 국가임금위원회는 지역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6% 인상하는 통일안을 선택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르면 7월부터 지역별 월 최저임금은 현행 대비 최소 18만 đồng~26만 đồng(7.8~11.4달러)이 인상 되며, 지역별 월 최저임금은 ▲하노이·호찌민 등 1급지 486만 đồng(203달러) ▲하노이, 호찌민시 외곽 및 캔터(Can Tho), 다낭(Da Nang), 하이퐁(Hai Phong) 등 2급지 416만 đồng(182달러) ▲박닌(Bac Ninh), 박장(Bac Giang), 하이즈엉(Hai Duong) 등 3급지 364만 đồng(159달러) ▲기타 농촌 및 도서지역으로 분류되는 4급지 325만 đồng(141달러) 등임. 베트남 노동총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11월 15일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Decision No. 90/2019/ND-CP)에 따라 최저 임금을 동결해왔으나 2022년 1분기부터 베트남의 경제상황이 회복세를 보이며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직원의 근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2년만에 정부에 최저 임금 인상을 제안한다고 밝힘.

[베트남 정부포털, 4. 12]

▶ 베트남 기름값, 3월 하순부터 3회 연속 하락

베트남 연료 소매 가격이 4월 12일 인하 되었음. 이는 3월 하순 이후 3회 연속 하락한 것이라고 산업무역부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함. 바이오 연료인 E5 RON92의 가격은 리터당 0.04 달러(838 베트남 동) 떨어진 1.16 달러(26,471 베트남 동)로 책정 되었고, RON95의 가격은 리터당 0.04 달러(836 베트남 동) 낮은 1.19 달러(27,317 베트남 동)로 책정되었음. 경유와 등유는 리터당 각각 0.03 달러(각 700, 735 베트남 동)가 하락하였으나 중유는 키로그램 당 1.19 달러(VND 27,317)로 여전히 가격이 유지됨.

[The Saigon Times, 4. 12]

▶ 미국, 베트남 꿀에 대한 반덤핑 관세 7배 인하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미 상무부(DOC)가 베트남산 수입 꿀에 대한 반덤핑세율을 기존 410.93% ~ 413.99%에서 58.74 ~ 61.27%로 7배 가까이 인하했다고 밝힘. 2021년 5월 미 상무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우크라이나, 베트남산 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7개월 후 미 상무부는 베트남산 수입 꿀 제품에 대해 최대 412.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베트남 생산 꿀 수출의 90%에 해당하는 미국 수출 시장의 반덤핑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 상무부에서도 베트남을 구제하고자 함. 미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꿀은 총 5만 700톤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함. 2021년 첫 9개월 동안 베트남의 꿀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5% 이상 증가한 8,300만 달러에 달함. 2021년 미국의 최대 꿀 수입국은 베트남(90%)이며, EU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 뒤를 이음.

[Bao Chinh Phu.vn, 4. 12]



▶ 비나선 택시, 올해까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상장 폐지 위기

베트남의 대표적인 택시회사인 비나선(Vinasun)은 2020년부터 영업 적자를 기록중임. 규정에 따르면 상장 회사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처함. 비나선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00억 동의 손실을 냈으며, 2021년에는 2,770억 동의 적자를 기록함.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영업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1,800명의 택시기사를 포함한 2,500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음. 비나선은 합리적인 보수 정책과 소득 분배를 통해 해고된 직원을 다시 복직 시키고, 500대의 택시를 택시기사에게 후불제로 판매하여 개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할 계획임.

[VN Express, 4. 12]

▶ 베트남 정부, ODA 및 해외 양허성 차관 지출 가속화 촉구

베트남 정부는 올 1분기에 지출된 ODA 및 해외 양허성 대출이 0.99%에 불과함을 밝히고 지출을 가속화할 것을 각 정부부처,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촉구함. 검토기간동안 낮은 지출 비율은 일부 부처,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부지 정리가 지연되고 지출에 대한 결단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함. 또한 철강, 석재, 모래, 시멘트 등의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ODA 프로젝트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함.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통제되는 가운데 정부는 ODA와 양허성 차관 등을 포함한 공공투자자본 지출 가속화를 경제 회복의 필수 솔루션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지출 진행과 관련된 병목현상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함. 특히 정부는 기획투자부에 ODA 및 양허성 차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No.114/2021/ND-CP)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함.

[베트남 정부포털, 4. 9]

▶ 베트남전기(EVN), 올해 전기요금 동결

베트남 국영전력회사인 베트남전기(EVN)는 2022년 말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연장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EVN은 전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베트남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나, 급증하는 투입비용으로 인하여 전기 생산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2022년 후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임. 특히 베트남의 두 가지 주요 전력 생산원인 수입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대비 3배 급등했다고 밝힘. 베트남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기요금을 동결한 바 있음.

[VN Express, 4. 9]

▶ 베트남, 5G 상용화 가속화

5G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에 변화를 주고 있음. 베트남은 5G 상용화 시행을 최초로 도입한 국가 중 하나이며 상용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2020년 비나폰(Vina Phone), 모비폰(Mobi Phone), 비엣텔(Viettel) 등 베트남 3대 통신사들은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 내 5G 상용화 시행을 발표하였음. 2021년에는 비엣텔, VNPT, 모비폰에서 16개의 도시에 상용 테스트를 진행함.

[Vietnam News.vn, 4. 6]



▶ CNBC, 2022년 동남아 3대 시장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지목

CNBC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이 뽑은 2022년 동남아 3대 시장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라고 밝힘. 이 중 베트남은 경제 회복력과 성장력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스타 국가로 선정됨.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베트남 경제는 5.03% 성장했으며, 농림어업 부문은 2.45%, 산업 및 건설 부문은 6.38%, 서비스 부문은 4.58% 성장하여 전체 경제 성장의 각각 5.76%, 51.08% 및 43.16%를 기여함. 1분기 들어 베트남의 약 2만 5,600개 기업이 영업을 재개했으며 3월 내 신규 설립된 사업체 수는 1만 4,300개로 전월보다 96% 증가함.

[베트남 정부포털, 4. 5]

▶ 프랑스의 화장품 유통업체 세포라,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유통업체인 세포라(Sephora)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매장 플랫폼을 통하여 베트남 시장에 공식 진출함. 세포라는 지난 5개월간 전자상거래를 시험 운영을 통하여 베트남 시장의 가능성을 탐진한 바 있음. 세포라 몰을 통해 베트남 고객은 판매자로부터 직접 해외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세포라 창고에서 수취인의 주소로 직접 배송되기 때문에 배송대행지가 필요하지 않음. 세포라는 LVMH 소유의 다양한 화장품 유통 판매 브랜드로 Nars, YSL Beauty, Makeup Forever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음.

[Vietnam Investment Review, 4. 6]

▶ ADB : 베트남, 2022년 경제성장을 6.5%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2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6.5%, 2023년에는 6.7%가 될 것으로 전망함. 3월 22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인구의 79.4%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47.5%가 추가 접종을 완료함. 높은 백신 접종률은 비즈니스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됨. 베트남통계청의 제조업 비즈니스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는 2022년 생산 및 제조업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음. 그러나 ADB는 3월 중순 이후 높은 코로나19 감염, 글로벌 회복 둔화, 글로벌 유가급등,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선진국의 통화 및 재정 조정 철회 등의 변수가 베트남 동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베트남 정부포털, 4. 6]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2022 경제성장을 전망치 시나리오 공개

베트남 통계청(GSO)은 2022년 베트남 경제 성장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함. 베트남에서 코로나19가 통제되는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유지된다면 베트남 경제는 올해 6% 성장할 전망임.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GDP는 2분기에 5.5%, 3분기에 7.5%, 4분기에 6.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진정되고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완료 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6.5%에 달하며, 이 시나리오에서 GDP 성장률은 2분기에 6.1%, 3분기에 7.5%, 4분기에 6.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앞서 GSO는 올 1~3월 경제 성장률을 5.03%로 추산한 바 있음.

[베트남 정부포털, 4. 4]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하이즈엉성 스마트 수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응에안성 Khe Go Lake 수상태양광 투자건설
- 응에안성 Vuc Mau Lake 수상태양광 투자건설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하이즈엉성 스마트 수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NAWAPI (National Center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Investigation)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Hai Duong성 ○ 규모 : 약 20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펀딩 ○ 프로젝트 단계 : 계획, '23년 입찰 예정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데이터 수입, 정보처리, 사용량 분석 등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센서, 계량기, 펌프, 누수감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포함 - 고객별 물 사용량 분석 및 데이터 제공(어플, 전화문자 등)

- 응에안성 Khe Go Lake 수상태양광 투자건설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Nghe An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Nghe An성 Quynh Luu군 ○ 규모 : 약 178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 PPP ○ 프로젝트 단계 : Pre F/S완료('22.3월)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te area : 303.48 ha - Capacity : 250 MWp - Voltage : 110kV - Power generation(1st year) : 339.129 mil KWh



(입찰정보)

□ 응예안성 Vuc Mau Lake 수상태양광 투자건설

발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명 : Nghe An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위치 : Nghe An성 Quynh Luu군○ 규모 : 약 160백만 달러○ 프로젝트 재원 : PPP○ 프로젝트 단계 : Pre F/S완료('22.3월)○ 세부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Site area : 216.3 ha- Capacity : 200 MWp- Voltage : 220kV- Power generation(1st year) : 265.8 mil KWh

<끝>



주베트남한국중소기업연합회(KOBIZ)

이현석 제6대 주베트남한국중소기업연합회 회장

베트남 사업의 고충과 해법,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부터 주베트남 한국중소기업연합회 제6대 회장을 맡게 된 이현석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96년에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친목모임으로 시작한 저희 단체는, 2014년 중소기업연합회로 발족을 하였고, 2016년 한국의 중소기업중앙회(KBIZ)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 중소기업 중앙회 하노이 연합회로 활동, 2021년 주베트남 한국중소기업연합회(KOBIZ)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의 단체입니다. 2022년 현재 400여개의 회원사가 있고, 임원진에는 고문단, 회장단, 자문단 등 25여명의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코참과 다른 중기연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코참은 대기업을 포함한 한국 상공인 연합회이고, 저희 코비즈는 중소기업, 강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구성된 단체이며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중소기업들의 연합 단체입니다. 한국으로 비교한다면,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비즈(KOBIZ)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공익사업에도 주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코비즈가 2020년 시작된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한 사업들을 소개하자면,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으로 입국이 어려울 때 특별입국을 진행하여, 한국 단체로는 최초로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입국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기업인들이 하노이로 입국할 수 있도록 △ 월 2회 정기노선을 확정하여 우리 기업인들이 베트남으로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 베트남 입국 시 21일로 격리 기간이 늘어났을 때, 베트남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14일 격리로 승인을 받았고 △ 한국의 K-MOVE 청년 취업생들, 유학생, 학부모, 사업인 가족, 각 기관의 관계자 등의 입국을 도왔으며, △ 총 22차에 걸쳐 3,300여명의 기업인과 관계자들이 투명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코비즈가 진행한 베트남으로의 특별입국은, 베트남에서 사업 하거나 사업차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경제적 가치를 보더라도 매우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이 백신을 맞기 어려운 때에, 베트남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외국 경제단체로는 최초로 우리 기업인들에게 2021년 7월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였고, 수도인 하노이는 물론 각 지방성에 건의하여 지방에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다낭시는 전체 교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호치민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한국 교민이 사망하였을 때, 어떤 조치나 절차없이 화장하는 사례를 보고, 확진자나 중증 환자들의 보호가 절실하다는 것을 베트남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노력하여, 하노이 열대 중앙병원에 한국인 전용 병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후 확진자가 연락할 수 있는 핫 라인을 만들어 환자가 발생할 시 열대 중앙병원으로 격리,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한국인 확진자들을 관리하였습니다.

이현석 신임회장의 임기중 포부도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2000년 중반에 베트남에 진출하여, 합작이 아닌 한국 법인으로는 최초로 화장품공장을 하노이에 설립하였습니다. 공장 허가와 설립까지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품의 인허가나 수출입, 판매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각종 사업의 정보나 선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중소기업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중소기업 연합회에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이 많아지고, 많은 정보와 유관기관들이 있어 베트남 진출 초창기만큼 어렵지는 않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서의 사업과 정부부처와의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코비즈는 한국 중소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겪는 어려움들을 함께하고, 같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코비즈가 진행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베트남에 한국 중소기업 무역관을 개설하겠습니다. 현재 하노이 시내에 한국 중소기업 무역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한국에서 진출할 중소기업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많은 우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베트남에서 코비즈 메타버스(metaverse)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연말부터 IT 전문 한국기업과 코비즈 메타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과, 기술, 노하우 등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코비즈 메타버스 안에서 베트남 중소기업들과는 양국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베트남 분들에게는 한국기업의 많은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간과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상반기부터 사업 부분별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올해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의 제 1 외국어가 된 한글의 교육사업을 올 3월부터 진행합니다. 저희 코비즈 산학협력단에서 작년말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한글교육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였고, 8개월 32강의 프로그램으로 주 3회(온라인 2회, 오프라인 1회) 진행 합니다. 베트남의 6개 지방성과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협의를 이미 마무리 하였고, 올해 총 15개 지방성에 한국어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한국 중소기업 박람회를 올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비즈 통상사업단에서 이미 많은 한국의 지방자치 정부들과 기업들, 또 단체들과 박람회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이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박람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동안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희망을 잃지않고 노력해온 우리 한국중소기업들이,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 자유롭게 사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주베트남 한국중소기업 연합회(KOBIZ)는 운영진을 포함한 회원사,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한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MEET KOREA 2022 (in Thanh Hoa) 이모저모

□ 개최일자 및 장소

- 일시·장소 : 2022. 3. 24(목)~26(토), 베트남 태양화성 FLC 호텔

□ 사업내용

- 사업성격 : 베트남 홍강델타·북중부 12개 성시의 책임자급(당서기 혹은 성장급)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베트남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국기업들과 투자 상담기회를 갖는 대규모 G2G, B2G 행사(컨퍼런스, G2G 및 G2B상담, 전시 등)

<태양화성·홍강삼각주·북중부의 위치 및 참여지방성 명단>



○ 북중부(5개 성)	○ 홍강델타(7개 성)
- 태양화성	- 하노이
- 응에안성	- 꽝닌성
- 꽝찌성	- 닌빙성
- 꽝빈성	- 하남성
- 하粼성	- 남딘성
	- 하이퐁(직할시)
	- 타이빙성

- 참석자 규모 : 약 500명

- 베트남측(350명) : 응웬 밍 부 외교부 차관, 도 탕 하이 산업무역부 차관, 12개 성시의 책임자 및 실무자 등 총 350여명
※ 판 민 징 총리는 당초 참여예정이었으나 당일 급한 일정으로 불참
- 한국측(150명) : 대사관, 코트라 등 공공기관, 현지진출 대표기업 및 성별 네트워크상담 참가희망기업 등 총 150여명



MEET THANH HOA



MEET KOREA 컨퍼런스





G2GB 상담회



전시부스



베트남 언론보도





2022 베트남 엑스포

제31회 2022 베트남 엑스포가 4월 13일(수)부터 16일(토)까지 나흘간 하노이 국제전시센터(ICE)에서 개최되었다. 산업무역부 산하 무역진흥청(VIETRADE)이 주최하고 국영 무역박람회 및 광고 회사(VINEXAD)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디지털 세계에서 함께 나아가자’(Step together in Digitized world)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1991년 최초 개최되어 올해로 제31회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베트남과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쿠바 등 15개국에서 410개 기업이 38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였다. 베트남 정부의 완화된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힘입어, 올해 전시회의 참가기업 수는 작년 대비 90개사 증가하며 일상으로 복귀한 베트남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 행사개요

행사 명	제31회 베트남 국제무역박람회 (VIETNAM EXPO 2022)
주제	VIETNAM EXPO – 디지털 세계에서 함께 나아가자(Step together in Digitized world)
전시 기간	2022년 4월 13일(수) ~ 15일(금) 9:00 ~ 18:00 2022년 4월 16일(토) 9:00 ~ 15:00
장소	하노이 국제 전시 센터 – Hano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ICE) (주소 : 91 Tran Hung Dao, Hoan Kiem, Hanoi, Vietnam)
주최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무역진흥청(VIETRADE)
공동주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발전협의회(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텐진국제박람무역진흥유한회사(TIANJIN INTERNATIONAL EXHIBITION & FOREIGN TRADE PROMOTION CO., LTD), 위엔파국제전시유한회사(YUAN DA INTERNATIONAL EXHIBITION CO., LTD)
주관	베트남 국영 무역박람회 및 광고회사(VINEXAD)
주력 전시분야	- 베트남 밸류 및 수출 - 기계 및 기반산업 - 디지털솔루션 및 전자상거래 - 식품 및 음료
미디어 협찬	- Vietnam Economic Times/Vietnam Investment Review/Vietnam News/Bizhub.vn / Vietnam Economic News/Vietnam Industry and Trade Newspaper



베트남엑스포 2022 주요 전시 분야

INTERATIONAL PAVILIONS	VIETNAM VALUE & EXPORT	MACHINERY & SUPPORTING INDUSTRIES	DIGITAL TECHNOLOGY & E-COMMERCE
 <p>International Pavilion, coordinated by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displays country-specific key products and services</p>	 <p>Vietnam Value</p> <p>The section displays products and services from enterprises who received Vietnam Value awards & from key export industries in Vietnam</p>	 <p>Industrial machinery & equipment, Construction Machinery, Chemical product, Electric and Electronic products, Computer & telecommunications, Home appliances, Hand tools & Hardware products</p>	 <p>Services; E-commerce; Information technology; Digital technology application and innovation</p>

전시부스



알리바바 및 아마존 글로벌 셀링 홍보 부스



베트남 산업무역부 투자진흥청(VIETRADE)과 하노이시 투자무역관광진흥청(HPA) 홍보 부스



KOTRA 한국관

KOTRA 하노이무역관은 '99년부터 23회째 연속으로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Korean Pavilion)을 주관해왔으며, 올해는 인천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022년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국은 2022 베트남 엑스포의 명예참가국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금년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기업의 수는 총 71개사로(개별참가 포함), 베트남을 제외한 해외참가국 중 최대 규모로 참가하였다. 금년도 180평방미터 규모로 운영된 KOTRA 한국관은 미용. 화장(15개사), 소재. 장비(12개사), 식품. 음료(16개사), 패션. 잡화(11개사)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54개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청주상공회의소(12개 부스)에서도 단체관을 구성해 참가,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화장품, 미용기기 등을 선보이며 베트남 판로 개척을 함께 지원하였다.



한국관 전경

다채로운 해외 기업 참가



(왼)벨라루스관 전경, (오)인도네시아관 전경



합작 법인 설립시 고려해야 할 점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지사장,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들어가며

합작법인 또는 합작회사(JVC -Joint Venture Company)는 둘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회사)를 의미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투자자 분들 중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합작 법인 설립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작회사를 좁은의미로 사용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0% 외투기업이 좋은지,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로서 말씀드린다면 서로 다른 비즈니스 문화를 지닌 투자자들이 함께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베트남에서는 회사의 분할, 합병, 청산 등이 쉽지 아니하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부분이 아니라면 합작법인 설립을 권장 드리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법제도, 문화에서 서로 함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자의 시각에서는 비합리적이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베트남 파트너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당연시 여기고 자세한 설명 없이 베트남의 문화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간에 기본으로 하는 전제가 달라질 수 있어 여러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하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외투기업보다 베트남 파트너가 있는 것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난이도가 낮다거나, 운영할 때 더 좋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투자당시 합작회사로 설립을 하게 된다면 100%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하는 것과 동일한 인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가 도움이 되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베트남 법률이 합작법인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몇몇 업종의 경우 한-베FTA조약 또는 베트남 법률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율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 파트너와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상호간에 협력하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합작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베트남 기업법 상 회사의 형태와 합작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위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법인의 종류

가.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베트남은 법인의 종류를 주식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국영회사, 합명회사, 개인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검토해야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 회사입니다. 베트남에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대부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됩니다. 이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더 편하거나, 승인 받는데 이점이 있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 베트남 기업법이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3인의 주주를 요구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부분 외국투자기업은 한국 본사에서 출자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와 같이 회사 또는 개인 1인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3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투자자를 설정해야 하는데, 해외투자의 경우 해외투자신고, 보고의무 등을 비롯하여 실무상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요인이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3인 요건을 맞추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공통점은 ‘유한책임’이라는 속성입니다. 즉,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 또는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며, 출자한 자본금을 한도로 재산상 의무에 책임을 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은 유한책임회사를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이며,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에서 100% 투자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1인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베트남 외국투자법인들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형태의 법인입니다. 투자자가 1인 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지분을 일부 매각하여 지분권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 형태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주가 1인이고, 100% 소유주 이기 때문에 회사의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대부분 본사의 결정에 따라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 운영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2인 이상, 50인 이하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파트너 또는 타 투자자와 2인의 투자자가 설립하는 경우 취해지는 법인 형태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경우 2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중 어떤 회사를 택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회사의 설립 난이도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3인의 투자자가 법률상 요구될 뿐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3인 투자자 요건을 맞추어서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비교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각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주총회와, 주주총회에 대비되는 사원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 결의와 사원총회 결의에 요구되는 지분권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신 기업법에 따라 50% 초과되는 주식수를 가진 주주 참석으로 개최가 가능하며(제145조) 결의가 가능합니다(제148조). 구 기업법이 51% 이상의 주식수가 요구되었던 부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사원총회의 경우 65% 지분권이 요구가 됩니다.

상기 50% 초과 및 65% 지분 요건은 일반결의에 대한 경우이며, 총자산가액 35% 이상의 자산에 대한 거래, 회사의 구조조정 등과 같이 중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 결의가 요구되는 바, 주식회사의 경우 특별 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는 65%이지만, 사원총회의 경우 75%의 주식수가 요구됩니다. 때문에 타 투자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떤 회사의 형태를 취하는지에 따라 각 권리관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법을 생각하고, 2명의 투자자가 51:49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베트남 기업법에 따라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을 해야하는데, 51%로 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했다면, 베트남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지분을 65%까지 확보하거나, 투자자 수를 3인으로 맞추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어느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 투자자의 수, 투자지분율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3. 합작투자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또는 합작계약서)란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계약서입니다. 합작투자계약이 작성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달리 합작투자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호간의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합작법인 운영이 계획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지분정리방법, 상호간의 계약 위반시 폐널티 등 사업을 함께 이제 막 시작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논의하기 어렵고 민감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신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입장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부정적인 미래를 가정하거나 상호간의 갈등 발생시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의하기 어려운 나머지 좋게 좋게, 낙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고 두루뭉술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서상 누군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해 일방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발생하는 것이 아닌, 중요 사항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상호간에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전에 합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일방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급적 서로가 그 합의내용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야 다른 경우에도 상대방 역시 계약을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합작계약서는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그 내용은 각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재무적 의무, 지분양도 금지 제한, 각 회사 내 주요 직책에 관한 임명권한, 지분양수도 시 우선매수청구권, 교착상태 발생시 지분양도, 지분청산 또는 회사청산 등의 절차 등을 포함하므로 아직 투자를 진행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갈등상황을 사전에 고려하고 합의하기란 민감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계약들은 일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내용의 계약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합작계약의 경우 일방당사자의 이득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파트너사이의 운영에 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계약 내용을 조율해야 하므로 각 이슈들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치며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가 협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작투자보다 단독 투자가 외국인 투자비율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합작법인을 자문할 때 변호사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사자간에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민감한 주제이기에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으로 협의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할 때의 불편함은 잠깐이지만, 이러한 논의 자체가 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기업법 상 회사 형태에 따라 같은 지분이라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기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이러한 베트남 기업법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시어 목표로 하시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끝>



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3)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지난 2회의 기고문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부패 방지, 부동산과 관련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법규와 개정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광고/라벨, 근무 시간, 환경 및 쓰레기 분리수거, 교통 법규와 차량 등록비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새 법규와 개정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통계, 광고, 상품 라벨, 의료기기 라벨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계 규정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95/2016/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시행령(Decree 100/2021/ND-CP)에 따라 대중 매체에 배포하거나 게시할 때 통계를 잘못 인용하면 최대 1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실,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2013년에 발효되어 현재도 유효한 광고법(Law 16/2012/QH13)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근거 서류 없이 '최고', '최고', '유일', '1위'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근거 서류는 인증된 시장 조사 기관이 수행한 시장 조사 결과나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최고임을 증명하는 지역이나 국가 대회 또는 전시회에서 광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한 인증서 등을 근거로 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2022년 2월 15일 발효된 '상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 43/2017/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 보완'하는 시행령(Decree 111/2021/ND-CP)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출입 업체는 자체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장소를 표시해야 한다. 즉, "조립된", "병에 넣은", "완성된", "포장된"과 같은 제품의 완성 단계를 나타내는 문구를 기재하고, 최종 단계가 완료된 국가나 지역의 이름을 "labeled in" 뒤에 포함해야 한다. 참고로 베트남으로 수입이 불가한 상품이나 반품으로 인해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굵은 글자로 "Được sản xuất tại Việt Nam(Made in Vietnam)" 라벨을 붙이도록 한 기존 시행령 43/2017/ND-CP 제8조 4항은 폐지되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단속이 강화된 의료기기의 제조와 유통 관련, 베트남에서 제조하거나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라벨에는 '의료기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및 '의료기기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의료기기 등록 번호가 없다면 '의료기기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수입 허가서를 받은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파견, 계절적 근로자의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Law 72/2006/QH11) 시행’에 대한 시행령(Decree 112/2021/ND-CP)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베트남 은행에 20억 동(한화 약 1억 7백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만약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기 위해 지점을 여는 경우에는 각 지점 당 5억 동(한화 약 2천7백만 원)의 추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또, 계절적 생산 작업 및 임가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18/2021/TT-BLDTBXH)이 2022년 2월 1일 발효되었다. 표준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로 시간 관련, 1일 기준 근로 시간은 8시간이나 1일 최대 4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즉, 1일 최대 근로 시간은 12시간). 단, 초과 근로 시간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72시간이고, 1개월과 1년 최대 추가 작업 시간은 각 40시간과 300시간인 점에 유의하여, 근로자별로 적절하게 작업 시간을 안배하기를 권한다. 본 시행규칙은 12~36개월의 유한 근로 계약 하에서 농업/임업/어업/소금 생산 분야의 계절적 생산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오존층 보호 등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된,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Law 72/2020/QH14)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본 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대한 베트남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 내 탄소 시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할당 받거나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의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에 관한 관리기관 및 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베트남 내 탄소 시장의 설립과 개발을 위한 로드맵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 환경 보호법(Law 55/2014/QH13)은 환경이나 토지 이용 지역에 악영향을 주는 투자 사업을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크게 분류하였었는데, 현 환경 보호법(Law 72/2020/QH14)은 규모, 용량, 생산 유형, 비즈니스, 서비스, 친환경 요인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투자사업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4가지(그룹 I~IV)로 분류하고, 각 종류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로 분류된 그룹 I은 예비환경영향평가(Prelimin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IA)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 그룹에 속한 프로젝트는 하지 않아도 된다.



현 환경 보호법은 각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또는 1인당 평균을 기준으로 모두 같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부과되어, 사실 비용 때문에 쓰레기를 덜 버릴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었다. 현 환경 보호법에서는 가정 및 개인의 생활 쓰레기 분류 의무를 부여하여, 이제 (i) 재활용 쓰레기, (ii) 음식물 쓰레기, (iii)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미분류한 쓰레기는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할 수 있고, 미분류한 개인에게도 최대 2천만 동(한화 약 1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정과 개인 쓰레기 수거 서비스 비용은 분류된 쓰레기의 무게나 부피에 따라 계산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규정에 대한 세부 방침이 나오지 않아 법은 이미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아마 새 규정의 시행 초기에는 환경미화원이 수작업으로 분류하다가 나중에는 쓰레기를 공인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수거 장소에 두어야 수거해가는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가 베트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 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 베트남 국산 차량 등록비 한시적 감면

필자가 베트남에 거주한 13년 동안 베트남에서 가장 변하지 않은 것이 무질서한 도로 상황과 관련 문화와 의식인 것 같다. 베트남에서 살면서 거의 매일 교통사고를 목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트남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차선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차량과 오토바이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 타고 내리는 사람, 서로 먼저 가려는 오토바이와 차, 거기에 사람까지 뒤엉킨 도로 상황에서, 사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것 같다.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 발효된 도로와 철도 교통 법규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Decree 123/2021/ND-CP)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승객 승하차를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물품을 싣거나 내리는 차량 운전자에게 기존보다 많이 높아진 1,000만 동~1,200만 동(한화 약 52만 원 ~ 6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 위반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니 언젠가는 베트남의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과 문화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차량 등록 수수료에 대한 시행령 103/2021/ND-CP 호에 따라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베트남 국내에서 조립·생산된 자동차나 트레일러 등을 처음 등록할 때는 수수료의 50% 감면해 준다는 것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끝>



베트남 지식재산권 안내

KOTRA 호치민 IP-DESK

현재 세계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은 지재권에 관한 인식이나 보호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최근 다수 자유 무역협정에 가입하면서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에 대한 대내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베트남은 국내 지재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재권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재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보다 선진화된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들은 지재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베트남 진출 시 자사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 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베트남 내 등록된 지재권의 소유자는 외투기업인 경우가 다수이다. 근래에는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진출을 염두해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 사전에 지재권을 등록하여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체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및 식물품종보호 등을 모두 통합하여 규율한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 기본체계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 2009년, 2019년 각 두 차례 개정하였다. 현행 개정 지식재산법 외에 기타 국회에서 제정한 관련 법률,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Decrees), 관련 관청(Ministries)에서 제정한 시행규칙(Circulars),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 지식재산권청 및 국립 저작권청이 제정한 내부 규정 등이 베트남 지식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다.

○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베트남에서는 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지적재산권사무소(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NOIP”)가 저작권/상표/특허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지재권 관련 사항들의 등록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는 크게 저작권, 상표권, 발명 등으로 구별되고, 이 중 상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이다.



- 저작권

베트남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권들은 타관할의 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과 유사하며, 문학/과학/음악/영화/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를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불확정 기한 보호를 받으나, 저작인격권 중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및 저작재산권 중 미술저작물은 첫 공표일로부터 75년간 보호 받으며, 고정 형태로 제작된 날(“해당일”)로부터 25년 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해당일로부터 100년간 보호 받는다.

저작권은 제작 시점에 자동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으나, 등기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 사무소에서 등기 절차를 밟아 베트남 내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갖출 수 있다.

- 상표권

베트남에서 상표는 NOIP에 등록하거나 Madrid System을 통해 접수하여 적용 국가를 베트남으로 지정해 NOIP로부터 보호허가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 등록은 국제관행을 따르고, 특정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10년이며(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우선 신청자가 우선권을 갖는 ‘선착순’에 관한 국제원칙이 적용된다.

- 발명 (특허)

특허의 방법을 통한 발명품 보호는 NOIP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한 발명품에 대한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4-30개월이 소요된다. 출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NOIP에서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은 즉시 거절된다. 요건을 충족한 출원 신청은 출원일로부터 19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며 출원 공개 후 일정 요건 하에 임시보호 권리가 발생한다.

실질심사 결과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사유와 함께 출원인에게 거절 통지를하게 된다. 특허 거절의 주된 이유는 출원에 관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등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 지재권 등록 및 보호

기본적으로 지재권은 지재권으로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한국에서 상표, 특허 등의 지재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당연히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등록을 완료한 상표, 특허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상표권자, 특허권자로서 권리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법에 따른 각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출원이 이루어진 지재권과 동일한 내용의 지재권을 베트남에서 출원하려는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91조 및 베트남이 가입한 파리조약에 따라 베트남 출원일보다 앞선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표와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재권 침해시 사후 구제수단

베트남에서 지재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사후 구제 절차가 있으며,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는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정적 구제는 경찰, 시장관리국, 세관, 인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후 조치로 실무에서 가장 선호되는 수단은 행정적 구제로 (1) 다른 절차보다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2) 모조품 몰수, 폐기 등 직접적인 구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3) 행정 조사를 통해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확보와 관련 정보 확인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가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보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보상 및 피해에 대한 추가 구제가 필요한 경우 침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이 때 민사소송 과정에서 행정 조사결과 등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재권 침해가 소비자 또는 사회 일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침해자가 침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적 제재 수단의 강제를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재권 침해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거나 침해에 이용된 물품 등을 압류하고 관련자 개인과 침해 장소 등을 수색하는 등의 예방적인 행정 조치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행정적 조치는 관련 기관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피침해자가 모조품 유통 등에 일부 증거를 수집하여 전문기관으로(VIPRI)부터 침해사실에 대한 공식 의견서 취득한 이후, 행정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여 개시된다.

- 지재권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세관등록

이 밖에도 지재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이 베트남 국외에서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모조품을 통관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세관에 모조품의 수출입 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입 통제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 담당자는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 수입 시, 통관절차를 임시 정지하고 지재권 보유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러한 통관절차 임시정지는 지재권을 침해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추후 민사 소송 등에 제출할 증빙을 확보할 수 있고,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경고나 벌금, 모조품 파기 등 행정 처분 실행을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통관절차 임시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지재권 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면(등록증), (2) 예상되는 모조품의 형태, 예상 수입회사(동 부분을 자세히 기재할수록 세관 공무원이 모조품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음) 등을 등록 신청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후 실제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통지를 세관으로부터 받고 통관절차 임시중지를 세관에 요청 시, 나중에 해당 제품이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보증금도 같이 공탁해야 한다. 이 때 보증금은 통관절차 임시중지 대상 상품 가치의 약 20%이며, 가치판단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최소 2,000만 베트남 VND(약 874 달러)을 공탁하여야 한다.



-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IP-DESK(이하 'IP-DESK') 지원 사업 및 업무 성과

IP-DESK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표권 등록 및 특허출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재권 출원 지원분야를 기존 상표, 디자인에서 특허까지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재권 분쟁 발생 이전 초동 대응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위조상품의 해외 유통 확산방지 관련 지재권 세관등록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세관등록 및 단속과정에서 수반되는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발생 시 IP-DESK는 현지 로펌을 활용해 지재권 침해 여부 조사와 함께 법률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필요시 재외공관을 통해 행정단속을 요청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일례로 몇 년 전 베트남 로컬 업체가 오리온社의 베트남 내 초코파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사실 무효심판을 청구한 로컬 업체는 현지에서 모조품을 제조하여 유통하고 있었고, 심판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IP-DESK는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 및 상황을 파악하여 해당 정보를 오리온社에 전달하였고, 이후 오리온社는 모조품 유통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침해업체가 청구한 심판을 기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후에도 IP-DESK는 베트남 지재권 관련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 후 오리온 법무팀 담당자와 미팅 주선을 통해 모조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베트남 내 무무소(MUMUSO, 중국에 본사를 둔 중국업체)라는 소매유통업체는 한국기업으로 위장하여 원산지를 한국으로 속이며 위조상품을 판매하였고, IP-DESK는 베트남 특허청 및 관련 부처와 협의·조사를 진행하여 38,384개 제품을 압수하고 벌금처분을 이끌어 낸바있다. 단속 이후에도 IP-DESK는 베트남 방송사, 신문사 등을 통해 한국 기업 표방 제품 구별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베트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짝퉁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베트남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코트라 호치민무역관은 현재 전담직원 및 상근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 중으로, 지재권으로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의 경우 IP-DESK<hcmipdesk@gmail.com, +84-28-3822-3944(Ext 157/135)>에 문의 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



베트남 진출기업의 국제무역패턴 분석

KIET 산업연구원

- 미·중 무역분쟁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분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였는데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 진출한 한국의 해외진출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음.
 -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의존도는 2017년 21.9%에서 2020년 19%로 감소, 동 기간 대베트남 의존도는 2%에서 3.5%로 증가
 - 중국과 베트남은 ①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크고, ② 미국을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하며, ③ 외자기업 중심의 가공무역이 수출을 주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무역은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한국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통상정책은 물론 산업정책 관점에서도 중요
-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무역행태를 분석하여 최근 세계무역구조 변화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임.
 - 일반적인 수출입통계는 해외진출기업의 무역행태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반면,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자료는 무역의 주체(기업)와 상대(기업)를 특정할 수 있어 세밀한 분석이 가능
 -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의 기업별 무역자료(B/L 자료) 분석을 통해 베트남의 수출 중 한국계 기업의 무역 기여분을 추계하고 최신 동향을 분석
 - 본 연구는 베트남 B/L 자료를 사용한 국내 최초의 연구인 김바우 외(2020)를 개선,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계열을 확장하여 베트남 진출기업의 무역구조 변화상을 파악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해외진출기업 무역행태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베트남 진출기업 무역패턴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향후 산업통상정책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

**베트남 진출기업의 국제무역패턴 분석**[KIET 산업연구원 홈페이지내 연구보고서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 - 흥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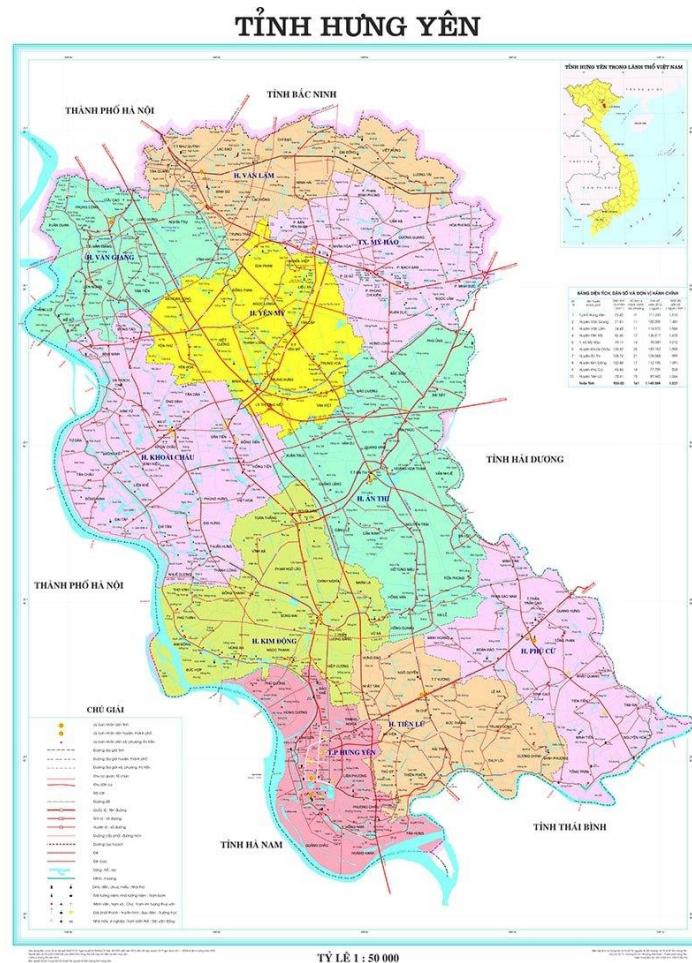
□ 흥옌(Hung Yen)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 930.19km² 인구 : 1,284,552명('21년) 도시거주 비율 : 16.63%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흥옌성은 흥강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하노이시 및 하남성, 서남쪽으로는 하이즈엉성, 북쪽으로는 박닌성, 남쪽으로는 타이빈성과 접해 있음 흥옌성은 북부 주요 경제 지역의 7개 성 및 도시 중 하나이며 하노이-하이퐁-꽝닌의 경제 삼각지대에 인접해 있음 흥옌성은 산업화 및 도시화를 향한 경제 발전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노이 수도권의 위성 지역임. 또한 흥옌성은 교통, 관광, 문화 및 인적 자원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의 연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흥옌성의 주요한 도로 교통 시스템 : 5A, 39A, 38번, 38B 국도, 200번, 207번, 208번, 199번 성도로, 흥옌성을 지나는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총 105.5km) 등
GRDP 성장률 / 1인당 GDP('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대비 GDP 성장률 : 6.52% 성 1인당 GDP : US 3,800 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수출액 : US 51.67억 달러('21년) / 총 수입액 : US 40억 달러('20년) 산업별 성장률 : 공업/건설업(8.82%), 서비스업(2.69%), 농수산업(2.78%)('21년)
산업구조('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건설업 : 63.67%, 서비스업 : 27.65%, 농수산업 : 8.68%
노무여건('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 68.2% 노동가능연령 인구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 65.8%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 27.12%
최저임금('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흥옌시, 미하오(My Hao)군, 반람(Van Lam)현, 반장(Van Giang)현, 엔미(Yen My)현 : VND 3,920,000= US 170 달러(2급지) 기타 현 : VND 3,430,000= US 149 달러(3급지)
외국인투자 ('21.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흥옌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497개 프로젝트에 총 58억 달러 규모 (한국) 145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7.35억 달러를 투자하여, 흥옌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1위, 투자금액 기준으로 2위 규모



□ 투자환경

○ 뛰어난 접근성 및 물류 인프라



(도로)

- 하노이 - 하이퐁을 연결하는 5번 국도
- 하노이 - 하이퐁간 고속도로(5B)
- 하노이 - 하이퐁 고속도로 및 까우제(Cau Gie)-닌빈간 고속도로 연결 도로

(수로)

- 홍강(Red river)과 루옥강(Luoc river)

(항구)

- 하이퐁시 딘부(Dinh Vu)항구에서 약 90km, 꽝닝성 까이란(Cai Lan)항구에서 약 120km 떨어져 있음

(철로)

- 홍옌성과 하노이, 하이퐁시, 꽝닝성 등 북부 지방성을 연결하는 하노이-하이즈엉-하이퐁 간 철로가 있음

(항공)

- 하노이시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까지 약 60km 거리



○ 관광 및 천연 자원

- 관광 잠재력



놈(Nom) 마을-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마을



포히엔(Pho Hien) - 유명한 옛 무역항



까오톤(Cao Thon) 전통 향 마을



반(Ban) 된장마을

홍옌성의 문화관광자원은 역사, 문화, 예술, 건축 유적, 수공예품, 민속예술, 축제 등 무형문화적 가치를 포함하여 매우 우수하고 다양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홍옌성에는 4개의 강변에 접한 현 및 도시가 있으며, 시원한 기후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지들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과수원, 꽃마을, 분재촌 등 강변 생태관광 발전 가능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함.

(홍강 강변) 반장(Van Giang)현, 콰이짜우(Khoai Chau)현, 홍옌시(Pho Hien 지역), 푸끄(Phu Cu)현 (루옥강 강변) 응우옌 화(Nguyen Hoa)마을 등

- 천연 자원

홍옌성의 총 자연 면적은 93,020ha임. 그 중 도시개발면적은 10,602ha로 11.37%를 차지하며, 도시지역의 택지는 3,495ha로 도시 토지면적의 32.96%를 차지함. 도시화 및 도시 개발 동기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세 (법적 근거: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구분	투자분야	법인세
산업단지 내부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첨단 기술법의 규정에 따른 하이테크 응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간 세율 10%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세, 이후 9년간 50% 감세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고급 철강 생산, 에너지 절약 제품 제조, 농업/임업/어업 및 소금 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 제조, 가축/가금류/수생 동물을 위한 사료 생산 및 정제, 전통산업 개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간 세율 17%(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세, 이후 4년간 50% 감세
산업단지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세율 20%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면세, 감세 및 기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토지 및 수면 임대료 (법적 근거: 제 46/2014/ND-CP 의결서[2014.05.15])

구분	투자분야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산업단지 내부	산업단지 내 인프라 건설 및 사업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내 인프라 건설을 위한 토지: 전체 임대 기간 동안 면제 기본 건설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 (최대 3년간), 관할 주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 발행일로부터 기본 건설의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 후: 다음 11년 면제
	산업단지 내 생산 및 사업 투자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건설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 (최대 3년간), 관할 주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 발행일로부터 기본 건설의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 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추가 면제 가능
산업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 내 인프라 건설 및 사업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클러스터 내 인프라 건설을 위한 토지 : 전체 임대 기간 동안 면제
	산업 클러스터 내 생산 및 사업 투자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년간 면제
산업단지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건설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면제 (최대 3년간), 관할 주기관의 토지 임대 결정 발행일로부터 기본 건설의 토지 임대료 면제 기간 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추가 면제 가능(농업 및 농촌 분야는 최대 11년간 추가 면제)

- 수입세 (법적 근거: 제 134/2016/ND-CP 의결서[2016.09.01])

화물, 설비 및 기계,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자재 및 기계 등을 수입 시 수입세 면제 적용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흥옌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497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58억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음.

○ 한국계 투자

2021년 12월말까지 흥옌성 내 한국투자는 145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7.35억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으며, 흥옌성에 투자한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 1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위 규모임. 한국 투자자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전자, 냉동, 기계 공학, 섬유 등임.

○ 흥옌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Mektron Vietnam Co., Ltd	전자기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	일본	300,000,000
2	Hoya Glass Disk Vietnam II Co., Ltd.	전기, 전자, 정보학, 통신	일본	213,815,000
3	Sews-Components Vietnam Co., Ltd.	자동차 및 오토바이용 전기전자 부품 제조	일본	160,000,000
4	제4 Toto Vietnam Co., Ltd.	위생도기 및 관련 액세서리 제조	일본	159,640,000
5	Hamaden Vietnam Co., Ltd.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제조	일본	133,000,000
6	Hyundai Aluminum Vina Co., Ltd.	알루미늄 빌렛 및 알루미늄 제품 생산	한국	131,375,000
7	Canon Electronics Vietnam Co., Ltd.	첨단기술 활용 영상처리기기 및 관련 부품, 전기기기 제조 및 조립	일본	128,568,000
8	Daikin Vietnam Co., Ltd.	에어컨 제조, 가공 및 조립	일본	123,000,000
9	Bong Sen - Nestlé Vietnam Co., Ltd.	건강기능성 음료 생산, 가공 및 포장	스위스	110,000,000
10	Regina Miracle International Hung Yen Co., Ltd.	섬유	홍콩	100,000,000



□ 공단 현황

○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 (ha)	주요 정보	투자자/개발사
1	포노이 (Pho Noi) 섬유 공단	2003	12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유치 분야: 경공업, 섬유, 소비재, 기계, 화학, 전기 기계, 전자, 식품 가공 산업, 제약 산업 등 통합 기술 인프라: 전체 면적에 구축 완료하였음. 공업토지 임대용 총면적은 93ha, 입주율 100% 	Pho Noi Textile & Garme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JSC
2	포노이 A (Pho Noi) 공단	2004	688.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유치 분야: 소비재 생산, 기계 조립, 전자 조립, 농산물 가공, 전기, 전자, 정밀 기계,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신규 건축 자재 생산 통합 기술 인프라: 약 550ha의 면적에 건설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 기술 기반 시설을 구축 하는 중임. 기임대 면적은 388ha(임대 가능한 공업 토지의 78.9%를 차지) 	Hoa Phat Hung Yen Industrial Parks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 Ltd
3	탕롱 II (Thang Long II) 공단	2006	5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유치 분야: 정밀 기계 및 전자 제품 제조, 자동차 산업용 고무 제품 생산, 경공업, 산업용 가스, 약물, 백신 및 생물학적 제품 제조, 광학 유리 생산, 첨단기술 응용 산업 등 통합 기술 인프라: 전체 면적 345.2ha에 기술 기반 시설 구축 완료. 기임대 면적은 258.82ha이며, 계획대로 180.5ha의 부지에 공장 건설 중임 	Thang Long Industrial Park II Corporation
4	민득 (Minh Duc) 공단	2006	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유치 분야: 부품/전기, 전자 장비/냉동/통신/신기술 및 첨단기술 제품/자동차 및 오토바이/조립식 금속 제품 제조 및 조립, 기계 공학, 농림 산물/식품/음료/동물사료 생산 및 가공 등 통합 기술 인프라: 91ha의 면적에 기술 기반 시설 구축하는 중임. 기임대 면적은 40ha(임대 가능한 공업토지의 25.8%를 차지) 	VNT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JSC



5	민광 (Minh Quang) 공단	2018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유치 분야: 전기, 전자, 냉동, 기계 공학, 농업, 임업 및 식품 가공, 고급 건축 자재, 포장, 소비재 생산, 경공업 및 청정산업 등 통합 기술 인프라: 100ha의 면적에 건설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에 기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중임. 기임대 면적은 32ha 이상(임대 가능한 공업 토지의 28%를 차지) 	VID Viet Nam JSC
6	옌미 (Yen My) 공단	2018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유치 분야: 하이테크 제품 생산, 전기·전자 부품/ 컴퓨터/광학 제품 제조, 조립식 금속 제품/자동차/ 오토바이 제조, 시품 가공 및 보존, 음료 생산, 목재 제품 생산, 의약품, 화장품, 페인트, 포장, 물류 서비스 등 통합 기술 인프라: 130ha의 면적에 기반 시설 건설되었으며, 나머지 150ha에 대한 보상 및 부지 정리하는 중임. 기임대 면적은 100ha 이상(임대 가능한 공업 토지의 49%를 차지) 	Viglacera Yen My - Hung Yen Industrial Zone Development JSC
7	옌미 II (Yen My II) 공단	2017	3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유치 분야: 전기, 전자 냉동 장비, 신기술, 첨단 기술 제품 생산 및 제조, 기계 공학, 기계 및 장비 제조; 소비재 생산(섬유, 가죽, 신발 산업, 농산물 및 식품 가공 프로젝트 제외) 통합 기술 인프라: 97.5ha의 면적에 건설되었으며 나머지 216ha의 지역은 법적 절차 정리하는 중임, 입주율 100% 	Hoa Phat Hung Yen Industrial Parks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 Ltd
8	청정공단	2021	14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기술 인프라: 부지 정리, 보상 및 기술 인프라 건설 진행하는 중임. 2022년 말부터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VTK Hung Yen Industrial Park Investment And Develop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
9	3번 공단	2022	159.71		Ecoland Industrial Park Management JSC
10	5번 공단	2021	192.64		Yen My Industrial Park Investment.,Jsc



□ 투자 유망분야

홍옌성은 대규모 투자 자본, 고부가가치 콘텐츠, 에너지 절약, 환경 친화적이며 성의 예산 수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첨단기술 응용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를 희망함.

□ 홍옌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홍옌성 투자촉진 및 사업지원센터	Mr. Nguyen Ngoc Khanh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 +84 913 280 664• Email : trungtamxtdt@hungyen.gov.vn• Website : hungyenbusiness.gov.vn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3(누계)
수 출	48,629(1.8)	48,178(-0.9)	48,510(0.7)	56,729(16.9)	16,648(30.5)
수 입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7,015(20.2)
무역수지	28,997	27,107	27,931	32,763	9,633

자료원: KITA

한국의 对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	2022.3(누계)
반도체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6(22)	4,269(42.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909(20.9)	7,970(-10.5)	9,552(19.9)	12,050(26.1)	3,375(40.0)
석유 제품	1,976(-0.6)	2,196(11.2)	1,196(-45.5)	1,157(-3.2)	1,168(385.7)
합성수지	1,659(15.1)	1,624(-2.1)	1,615(-0.6)	2,415(49.5)	823(57)
무선통신기기	2,631(-19.9)	2,932(11.4)	3,460(18)	3,315(-4.2)	691(-13.7)
기구부품	2,332(-10.7)	2,230(-4.4)	2,241(0.5)	2,405(7.3)	608(8.9)
철강판	1,049(6.5)	1,157(10.4)	1,052(-9.1)	1,267(20.4)	309(7.7)
플라스틱 제품	1,205(4.6)	1,210(0.4)	1,115(-7.8)	1,174(5.3)	279(5.6)
자동차부품	474(23.3)	668(40.9)	673(0.8)	924(37.3)	257(21)
편직물	1,107(-1)	996(-10)	851(-14.6)	931(9.4)	224(11.1)
기타	16,341	16,465	15,255	17,065	1,574
합 계	48,622	48,178(-0.9)	48,511(0.7)	56,729(16.9)	16,648(30.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对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	2022.3(누계)
무선통신기기	4,838(22)	5,691(17.6)	4,980(-12.5)	5,579(12)	1,781(30.5)
의류	3,570(24.2)	3,646(2.1)	3,145(-13.7)	3,393(7.9)	898(6.2)
컴퓨터	539(-3.7)	679(25.9)	1,270(87.1)	1,659(30.6)	685(13)
신변잡화	980(23.1)	1,053(7.4)	1,029(-2.2)	984(-4.4)	301(-10.2)
목재류	793(55.1)	657(-17.1)	632(-3.9)	755(19.5)	221(18.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37(88.4)	1,197(5.2)	1,027(-14.2)	876(-14.7)	216(97.5)
산업용 전기기기	417(31.5)	479(14.8)	574(20)	725(26.2)	210(22.4)
반도체	396(5.8)	471(19.1)	561(18.9)	750(33.8)	192(43.2)
기구부품	445(-10.4)	512(15.1)	481(-5.9)	624(29.6)	163(20)
영상기기	364(-9.1)	356(-2)	406(14)	460(13.2)	153(14.4)
기 타	6,164	6,331	6,474	8,161	752
합 계	19,643(21.4)	21,072(7.3)	20,579(-2.3)	23,966(16.5)	7,015(20.2)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1~2022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1년(연간)	%	7.6	5.6	3.7	2.6	7.6
	2021년 4Q	%	6.1	3.1	5.0	5.2	6.1
	2022년 1Q	%	3.4*	3.0*	N/A	5.0	3.4*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121.8	N/A	4.8	121.8
		2022년 2월	-	137.8	22.1	8.5%	137.8
		2022년 3월	-	N/A	21.8	8.5%	N/A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1년(연간)	-	50.7	N/A	N/A	50.7
		2022년 2월	-	50.2	52.8	54.3	50.2
		2022년 3월	-	50.1	53.2	51.7	50.1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1년(연간)	-	102.1	N/A	N/A	102.1
		2022년 2월	-	105.4	N/A	N/A	105.4
		2022년 3월	-	N/A	N/A	N/A	N/A
	소매판매	2021년(연간)	-	90.7	N/A	198.1*	90.7
		2022년 2월	-	81.0	2.3%*	200.0	81.0
		2022년 3월	-	N/A	2.1%*	204.0	N/A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2.3	4.5	106.5*	2.3
		2022년 2월	%	4.3	3.0	108.2	4.3
		2022년 3월	%	N/A	4.0	109.0	N/A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1년(연간)	%	118	N/A	9.2(누계)	118
		2022년 2월	%	N/A	N/A	△8.5(누계)	N/A
		2022년 3월	%	N/A	N/A	△12.1(누계)	N/A
고용	실업률	2021년(연간)	%	2.6	N/A	4.0	2.6
		2021년 4Q	%	2.5	6.9	3.6	2.5
		2022년 1Q	%	N/A	6.4	2.5	N/A
무역	수출증가율	2021년(연간)	%	19.1	N/A	19	19.1
		2022년 2월	%	22.1	15.0	13.2	22.1
		2022년 3월	%	13.9	N/A	48.2	13.9
	수입증가율	2021년(연간)	%	20.4	N/A	26.5	20.4
		2022년 2월	%	19.5	20.1	21.9	19.5
		2022년 3월	%	21.9	N/A	28.7	21.9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2022 MEET KOREA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은 **우리 진출기업들의 비즈니스환경 개선과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코트라와 협조하여 **MEET KOREA 2022 제2차 행사를** 빈딩성 꾸년시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 중남부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형 한-베트남 협력행사이며, 베트남 중남부·서부고원 14개 성시의 고위급(당서기 혹은 성장급 등)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이 베트남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일시

2022년 5월 12일(목)~14(토)

장소

베트남 빈딩성 꾸년시 **Convention Center**

(주소 : No. 1 Nguyen Tat Thanh St, Ly Thuong Kiet Ward,
Quy Nhon City, Binh Dinh Province)

- 참가자 숙소는 Anya Premier Quy Nhon 호텔(행사장 차량이동시 약 10분 소요)
- 공항, 숙소 및 회의장 간 이동 차량 제공 예정





2022 meet KOREA

참석자 규모: 약 500명

한국측(150명)

대사관, 코트라 등 공공기관 및 현지진출 대표기업 등

베트남측(350명)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 14개 지방성시 최고위급 지도자 등 총 350여명

충남부·서부고원의 위치 및 참여지방성 명단



충남부(9개 성)

- 다낭시
- 광남성
- 광응아이성
- 빈딩성
- 푸옌성
- 카잉화성
- 닉투언성
- 빙투언성
- 트어티엔후에성

서부고원(5개 성)

- 꼬뚱성
- 자라이성
- 닥락성
- 닥농성
- 럼동성





2022 meet KOREA

주요 일정

5월 12일(목)

Meet Binh Dinh – Korea 행사(빈당성 협력 세미나)

시간	프로그램
1500 ~ 17:30	- 개회식(빈당성 당서기)
	- 빈당성 인민위원회 총서, 주베트남한국대사 총서
	- 빈당 기업협회 대표 발표
	- 발표 : 코트라, 코이카, 코참
	- 참석자 토론
	- 빈당성과 코트라 호치민무역관간의 MOU 체결
18:00 ~ 20:00	- 공식만찬

5월 13일(금)

Meet Korea 2022 Conference(메인행사)

시간	프로그램
8:00 ~ 8:30	- 사전등록, 사진촬영, 네트워킹
8:30 ~ 9:00	- 개막 세션(고위급 기조 연설) ※ 베트남 측 중앙정부 인사, 빈당성 당서기, 주베트남한국대사 등
9:00 ~ 10:10	- Session 1. 한국과 중부고원지역간의 무역투자 협력방안
10:10 ~ 11:20	- Session 2. 한국과 중남부지역간의 무역투자 협력방안
11:20 ~ 11:30	- 폐막 세션
12:00 ~ 13:30	- 오찬

- 산업시찰(5.13일 오후) : 문화/관광/경제구역 방문

5월 14일(토)

체력단련(5.14일 오전) : 희망자만 참가(FLC Quy Nhon)





2022 meet KOREA

상담회 및 전시부스 설치

○ G2B 상담회 (잠정)

- 사전에 참가기업의 성별 건의사항·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지방성에 전달하며 행사당일 해당기업과 성별 책임자가 면담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 * 1개성당 20분씩 대표단 면담하며 대사관, 공공기관, 해당성별 관심기업이 참가

○ 전시부스 설치

- 베트남 측 홍보부스외에 참여 희망하는 한국기업 및 기관의 홍보부스와 코트라 홍보부스 설치 운영(베트남측 20개, 한국측 10개[신청마감])

숙박 및 운동

○ 숙박 및 골프 비용 안내(Promotion 적용 금액 제공)

- 숙박 : 1,650,000동/박 ~
- 골프 : 1,800,000동/인
- * 추가 변동사항 있을시 재안내 예정

신청 링크

[여기](#)(링크 포함)를 누르시면 신청 링크로 자동 연결됩니다

신청 문의

코트라 조아라 대리

(Tel) +84-243-946-0511(531), (E-mail) joara@kotra.or.kr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